

· 발행처: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 · 발행일: 2020.11.30 · 전화번호: 02-2272-1393 · <http://ccrps.dongguk.edu/>

1. 연구소 동정

■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팀 출범

본 CCRPS 연구소(소장: 김정석 교수)는 9월1일자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연구팀을 출범하고 연구를 개시하였다. 이는 『노인과 장애인 대상 통합지원 체계 구축전략과 실천방안』 연구로 노인과 장애인이 경험하는 빈곤의 다차원성에 주목하여, 이를 예방, 완화, 해결하려는 정부와 사회의 노력을 재조직화함으로써 지역사회주도(Community Driven) 노인·장애인 통합지원 체계 정립 및 확산하고자 한다. 통합돌봄 연구수행팀은 연구책임자 김정석(동국대) 교수를 필두로 기명(고려대), 천희란(중원대), 신유리(동국대), 문경주(한국 해양대), 장수지(경성대), 홍송이(동국대) 교수가 합류하였으며, 전임연구원은 이태헌, 문현아 박사가 참여하였다.

■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진구 MOU 체결

본 CCRPS 연구소(김정석 연구소장)는 11월 7일에 부산복지개발원과 부산광역시 북구청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연구에 상호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11월 27일에는 부산진구와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하였다. 부산복지개발원은 부산지역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을 제공해 왔으며, 부산 진구청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CCRPS 연구소는 이 협약을 맺은 기관들과 상호협조함으로써 부산지역 통합돌봄 사업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적인 전략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2. 학술 활동

■ 돌봄의 가치와 포용 사회, 국제학술대회 공동주최 및 발표



본 CCRPS 연구소는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등과 국제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10월 28-31일에 '돌봄의 가치와 포용 사회'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김정석 연구소장은 '돌봄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 연대와 통합'의 주제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금번 국제학술대회는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뿐 아니라 여러 국제적 참여기관과의 협력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참가

본 연구소 지역사회통합돌봄 연구팀은 11월 8일에 한국지방정부학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부산에서 주최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 과제와 전략'에 대한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공동연구원 문경주 교수와 장수지 교수는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한 베이비붐세대의 사회참여유형화와 영향요인분석'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신유리 교수는 해당 논문에 대한 토론을 맡았다. 또한 김정석 연구소장과 전임연구원 이태헌 박사, 정하영 교수는 '노인보행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문경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 한국인구학회 후기학술대회 참가 및 우수논문상 수상

김정석 연구소장은 11월 29일 한국인구학회와 통계청이 공동주최한 한국인구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사회문제와 보건' 섹션의 사회를 맡았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개최된 이 대회에서 김미선 박사과정생(서울대), 김정석 연구소장(동국대), 신유리 교수(동국대)가 공동으로 작업한 논문 '장애인의 결혼이행: 장애 유형 및 남녀 차이'를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인구학회 대학원생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어, 김미선 박사과정생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 주요 학술지 논문 게재(2019.09 ~ 2019.11)

심혜인, 홍송이. 2019. "노인학대 피해경험 예측요인".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6권 제3호: 209-204.

이 연구는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고자 한다. Lachs와 동료들(1997)의 선행연구에서 신체적 기능, 임상병리학적 요인, 사회연결망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영향요인 모델을 바탕으로 한국형 노인학대 영향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빈곤, 사적이전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의존성을 추가한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경제적 의존성, 사회적 관계, 신체적, 심리적 요인과 노인학대 피해경험 간의 예측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노인의 성(性)에 따른 노인학대 피해경험 간의 차이를 T검증과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노인실태조사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피해경험에서의 결측값을 제외한 10,073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사적이전을 받는 등의 경제적 의존성이 높은 노인,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는 배우자와의 비동거, 독거노인, 사회적 관계망이 고립되거나 약한 노인, 우울증 증세가 있거나 남성일 경우에 노인학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요인인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과 연령, 학력, 월평균가계소득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노인의 사회적 연결망이 낮은 점이 여성 노인이 갖고 있는 의존성보다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사회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교육, 활동, 프로그램 등의 구조화된 기회의 제공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성적 차이를 고려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Working Paper(2019.09 ~ 2019.11)

NO. 2019-F004. 기명 외 2019. "Social capital against suicide ideation in poor communities: small but protective". MEDICINE(202004 투고 중)

3. 콜로키움

■ 콜로키움 개최 안내(2019.12~2020.2)

제4차 콜로키움/ 2020.01.20(예정)/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지역 대학의 역할

- 발제자: 김정석, 문경주, 장수지
- 내 용:
 - 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싱크탱크로서의 지역사회 현장밀착형 기술 지원
 - ② 정부-광역시-기초지자체-민간단체 통합돌봄 정책개발, 모니터링의 연계·조정·협력 구심점 역할
 - ③ 국내외 정책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통합돌봄 연구협력의 허브 역할
- 추천도서: 최영준·최혜진, 2016, 『사회서비스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재량혼합의 관점에서』

제5차 콜로키움/ 2020.02.13(예정)/커뮤니티 케어의 개념과 인식 재정립

- 발제자: 김정석, 김일호, 이태헌
- 내 용:
 - ①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의 다층위성 파악 및 개념 재정립
 - ② 통합돌봄 공공분야 자원지도 구축
 - ③ COVID-19 시대에 통합돌봄 연구방향 재정립 및 내용조정
- 추천도서: 건강복지정책연구원, 2019, 『커뮤니티 케어 이론과 정책』

제6차 콜로키움/ 2020.03.27(예정)/ 통합모형 구축을 위한 제언(1) - 서비스 내용 및 욕구 통합

- 발제자: 김정석, 이태헌, 신유리
- 내 용:
 - ① 통합모형 구축을 위한 제언(1) - 서비스내용 및 욕구(주거/요양/의료/ 독립생활지원)별 통합 방안
 - ② 서울특별시 통합돌봄(돌봄SOS, 서울케어) 모델과 종합 체계도 고찰
 - ③ 통합돌봄 관계자 FGI 분석을 통한 부산 복구와 진구의 통합돌봄 정책, 협력지점, 장애요인 파악 방안
- 추천도서: Mark Baldwin, 2000, 『Care management and Community care』

■ 지난 콜로키움(2019.09 ~ 2019.11)

제1차 콜로키움/ 2019.09.27/ 통합돌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기초 논의

제2차 콜로키움/ 2019.11.04/ 특강: 위계화된 시민권과 파편사회

제3차 콜로키움/ 2019.12.27/ 연구진 수행논문 주제발표 및 의견교환

4. 연구소 알림

■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팀 구성

본 CCRSP 연구소는 2019년 9월 1일자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노인-장애인 대상 통합지원체계 구축전략과 실천방안" 과제에 착수하였다. 해당 과제는 연구소장인 김정석 교수가 과제 책임을 맡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팀'에 의해 수행된다. 공동연구원은 홍송이 교수, 기명 교수, 천희란 교수, 장수지 교수, 문경주 교수, 신유리 교수와 김일호 연구위원의 8명이 참여하였으며, 전임연구원으로는 문현아 박사와 이태헌 박사가 합류하였다. 해당 연구팀은 사회, 보건, 의료, 복지, 행정, 도시계획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다학제적인 학문을 추구한다.

■ 연구소 개명 및 조직 개편

본 연구소는 2019년 10월 1일자로 '인구와사회연구소'에서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로 개명하고 그 조직을 대폭 개편하였다. '협동' 연구소로의 개명은 다학제적 연구수행팀 내의 공동연구 수행과 연구수행팀과 외부연구지원팀의 연구수행협력,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연구참여, 지역사회변화를 위한 민·관·학의 협력 등에 이르기까지 다층위적이고 다영역적인 협동을 바탕으로 각 층위에 요구되는 협동연구를 수행하겠다는 의미이다.

연구소 개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소는 철저한 현장연구를 통해 기존의 취약계층연구에 지역사회·협력(협동)연구와 정책(활용)연구를 연계하여 연구주제를 심화, 발전시키고자 한다.